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다빈치코드로 유명한 댄 브라운(Dan Brown)의 소설 『오리진(Origin)』이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판되었다. 올 10월 초 초판 200만부가 전세계 12개국에 동시 출판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즈에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출간 즉시 10위권 안에 들었다.

인류의 기원은?

댄 브라운은 이 책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묻는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는 인문학의 명제이자, 모든 종교와 학문의 출발점이다. 과연 인류의 기원은 무엇인가? 생명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공룡처럼 멸종할 것인가, 아니면 핵전쟁이나 외계 행성과의 충돌 등으로 종말에 이를 것인가. 천지개벽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인가. 이외에도 많은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종교인들은 신으로부터 와서 신에게로 간다고 말한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사후 심판을 받아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원시생물에서 유인원을 거쳐 현생인류로 진화했으며, 멸종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또는 외계에서 왔다고도 말한다.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종교 현상이 세계적 추세다. 탈종교 현상은 1980년대부터 하나의 트렌드가 되



었다. 교회세습화, 대형성전 건축, 성직자 비윤리 행위, 종교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등이 탈종교를 부추긴다.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학과 종교간의 소통 부족, 다시 말하면 비과학적 교리 문제일지도 모른다.

종교에 대한 과학의 승리(?)

종교와 과학과의 충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천동설과 지동설로부터 창조론과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과학기술은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다. 과학에게 신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생명의 탄생은 신의 영역이라고 믿는데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밀고들어오고 있다.

댄 브라운은 『오리진(Origin)』에서 과학이 종교에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도 모른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어두운 종교는 사라지고 달콤한 과학이 지배한다"는 말을 랭던의 제자 커시의 분신인 AI 윈스턴의 입을 빌려

말한다.

승리제단의 견해: 우리는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간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영생체)이었다. 여기서 우리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실체이자 빛으로 존재하므로 태초의 세계는 빛의 세계였다.

그런데 하나님이었던 우리를 마귀(사망의 영)가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인 빛의 모습과 다른 현재의 사람의 모습, 만물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마귀(사망의 영)의 모습이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만물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류 역사 최초로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하나님이 그 마귀의 점령 상태에서 벗어나와 원래의 하나님이 되는 대역사가 벌어졌다. 즉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 원래의 빛의 모습을 되찾은 첫 존재가 나왔다. 이는 하나님으로 첫 회복이자 빛으로의 첫 환원이다. 그 첫 존재가 바로 조희성 구세주이다.

조희성 구세주는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마귀(사망)의 세계로 타락한 인류를 원래의 하나님의 세계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만일 구세주가 출현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과 우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엔트로피는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구세주는 엔트로피를 거역한다.

모든 현상은 하나님(생명)과 마귀(사망)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할 때에는 자연법칙의 적용을 받지만 하나님이 마귀보다 강할 때에는 자연법칙을 벗어난다. 승리제단의 역사는 바로 자연법칙을 거슬러올라가는 반자연법칙의 역사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2>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평상시에 희생적으로 생활하면서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덜 좋은 것은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습관이 될 때에 나라의 의식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나라의 주체 의식을 죽여 버리고 그 자리에 좌정하는 것입니다.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건 말건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되는데 자기만 죄인의 굴레에서 허덕이면 그것이 바로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지 실천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꼭 가고야마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반대생활을 해야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백날 승리제단에 나와 봐야 행동에 변화가 없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3>

“치열한 마음의 투쟁이 벌어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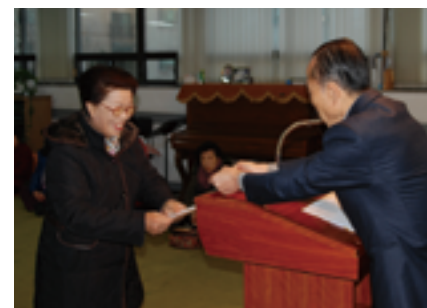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나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잘못 되었나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치열한 마음의 투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마음의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싸움도 없이 생각 돌아가는 대로 움직이는 자, 결코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자, 못마땅한 생각이 있는 자,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지 않는 자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마귀, 가장 큰 악습을 찾아서 그 악습을 버리려고, 그 악습

5지역 9월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1등



5지역 강준희 부지회장이 상금을 받고 있다

역이 이번에도 3위권에서 밀려나는 이번이 연출되었다. 4지역은 시상권에서 올해 두 번 이탈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6지역에 밀렸다.

한편 5지역은 지역, 구역, 개인 1등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고 구역 3등과 개인 3등까지 5개의 상금을 쓸어 담아 타지역의 부러움을 샀다. 3지역과 6지역은 2부문에 시상자를 올리는 성적을 거두었다.

본부제단 11월 성적에 대한 시상식 5일 구역장회의에서 있었다. 5지역이 2개월 만에 다시 1등을 차지함으로써 영파위를 과시하였고, 2등은 해외파의 지원으로 3지역이 되었고, 3등은 최근 전도열매를 맺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6지역이 했다. 저력의 4지

윤봉수 회장은 “11월은 지출이 항상 수입보다 많았는데 이번 11월은 달랐다. 이것은 전 식구들이 열심히 신앙을 한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다.*

박태선 기자 글 네이버 오픈백과 등재

올드네트브 문자가 새겨진 와당이 고조선 시대의 유물이라는 발견은 고조선의 문화 수준을 높이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승리신문 2017년 11월 1일자 746호에 게재된 <BC1200년경 야훼문자가 새겨져 있는 꽃무늬수막새> 기사가 네이버 지식인 오픈백과 고고학 분야에 등재되었다.

오픈백과에 등재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아무 글이나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고고학 분야의 권위자가 검토한 후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등재되는 것이

지 관련 학계의 검토 없이 되지는 않는다. 박 기자가 10월 28일에 지식인에 글을 올렸는데 오픈백과에 올라간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9일인 것을 볼 때 네이버 지식인 고고학 분야 담당 학자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글을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계에서는 이와당이 고구려 시대 출토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와당에 새겨진 문양이 기원전 1200년 경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 사용하던 문자라는 주장을 일각에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도 볼 수 있다. 관련 학계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고조선 시대 와당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경 축

메시야절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17년 12월 25일